

## 지역 주제박물관의 건립현황과 과제

최 종 호(박물관학연구소 소장 /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 겸임교수)

### <목 차>

- I. 지역사회와 주제박물관
- II. 주제박물관의 건립과 운영현황
- III. 지역 주제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증대
- IV. 지역 주제박물관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 I. 지역사회와 주제 박물관

‘지역사회’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일컫는다. 박물관과 박물관의 방문객 관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sup>16)</sup>는 박물관 반경 5마일 이내를 1)향토(local), 박물관에서 2시간 이내 여행거리를 2)지역(regional), 특정 나라 규모의 3)지방(national), 한 해 안에 여러 나라의 방문객이 찾는 4)국제(international) 수준의 4가지 범주로 박물관의 공동체(communitiy)를 분류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면 단위의 지역 기반을 향토, 시·군 단위의 지역 기반을 지역이라고 한다. 도 단위의 지역 기반을 지방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흔히 2개 이상 도 단위의 광범위 지역을 지방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전국에 광역시 도를 포함해서 23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단위의 지역을 기반으로 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행정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은 중앙정부에 대한 상대적 용어이며, 지역과 지방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 대한 변두리 또는 외곽이라는 의미로 지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행정구역상으로 지방(province)은 지역(region) 보다 큰 구역을 일컫는다. 특정 지역의 범주를 벗어난 광범위한 구역을 지방이라고 하는데,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역사회의 범주는 교통의 발달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보통 사

16 1975년 부활절부터 9월말까지 휴가코스로 잘 이용되고 있는 영국의 지방 도시에 있는 우수한 박물관의 입장객을 분석할 결과, 향토에서 45%, 지역에서 22%, 지방에서 29% 그리고 국제적으로 4% 방문객이 집계되었다.

람이 걸어서 하루동안에 걸어 갈 수 있는 거리가 100리(40km) 내외였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회의 풍속과 관습은 대략 100리 이내는 대동소이(大同小異)했다고 한다. 요즘 같으면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반경내의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형성된다.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빈부격차에 따른 교통수단과 도로, 철도, 해상, 항만, 공항 등의 교통여건에 따라 공동체의 범주가 다를 수 있겠지만, 대중교통으로 1시간 내외의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 ‘고장’에 대한 단원이 있는데, 이 경우에 고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이 관할하는 시·군 단위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삶의 터전을 일컫는다. 지역, 지역사회를 위한 주제박물관(thema museum)을 건립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후에 주제박물관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지역을 고장과 동일한 범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시·군 단위의 자치행정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로 규정한다.

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주제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염원이자 지역주민들의 희망과 숙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박물관은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관한 증거물을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 주제박물관은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과 생태환경 등을 기반으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 교육하는 복합공간으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주제박물관은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의 박물관이기는 하지만 개념중심(concept-oriented)의 박물관으로서 유형의 물질자료 보다 무형의 비물질 정보에 초점을 맞춰 특정 주제의 내용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표출함으로써 고객의 감성과 경험을 충족시켜 주는 복합공간이다. 주제박물관은 주제(thema)설정과 설립취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건립·운영될 수 있다. 주제설정에 따른 소재(matter)의 다양성과 구성물의 내용에 따라서 주제박물관은 종합박물관으로서 또는 전문박물관(특수박물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주제박물관은 특정 주제아래 박물관자료와 정보를 중심으로 공간을 설정하여 이용자들이 찾아들게 하는 개념중심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제박물관은 규모와 성격에 따라 1)종합박물관, 2)전문박물관 / 특수박물관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고, 공간에 따라 1)옥내, 2)야외, 3)가상현실 / 사이버, 4)복합형으로 건립·운영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1)국립, 2)공립, 3)사립, 4)대학, 5)법인 / 단체 등에 의해서 주제박물관이 설립되어 1)직영(사업소) 또는 위탁(법인/단체)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주제박물관이 운영될 수 있다.

주제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은 공동체 성원들의 공동관심사가 실질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주제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박물관의 설립취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제 설정에서부터 자료수집과 보존 및 정보관리, 연구, 교류, 전시, 교육을 위한 공간확보와 시설물의 배치 및 관리, 인적·물적 교류와 콘텐츠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 다양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주제박물관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고 그 기능과 역할 및 운영의 문제점을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풀어 나가면서 중장기발전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박물관을 건립·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를 위한 주제박물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입지선정과 지역주민을 위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구매거리 등이 주제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박물관의 규모와 성격, 기능 및 역할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주제박물관 상호간에 교류를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 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mission state)는 주제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역사회를 위한 주제박물관의 필요성은 주민들을 위한 대사회교육 및 평생학습, 위락공간 제공 외에도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물 자원 보다 무형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및 생태환경을 매개로 아이디어를 형상화하여 고객이 흥미를 느끼고, 체험학습을 통해서 얻은 자신의 만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여 주제박물관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모의 실행을 통해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후 추진해야 한다.

## II. 주제박물관의 건립과 운영현황

우리나라 2001년 1월 개정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1에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호·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2조 3에 “박물관자료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2001년 바르셀로나 총회에서 보완 개정된 국제박물관협의회 정관(ICOM Statutes)과

전문직원 윤리강령(Code of Professional Ethics, 2001)에 “박물관은 공중에게 개방되고,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한다.”정의되어 있다.

부차적으로 “(i)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관한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교류하는 자연과 고고학, 민족지의 기념물과 유적지, 그리고 박물관 성격의 역사적 기념물과 유적지; (ii) 동·식물원과 수족관, 동식물사육장치처럼 동물과 식물의 수집품을 갖고 있고 살아 있는 표본을 전시하는 기관; (iii) 과학관과 천문관; (iv) 비영리의 미술 전시실(galleries); (v) 자연보존지역; (vi) 규정에 명시한 정의에 준하는 박물관에 책임을 진 국제, 국가, 지역 또는 지방 박물관 조직 및 부(ministries), 처(departments)의 공공기관; (vii) 박물관과 박물관학에 관련된 보존, 연구, 교육, 훈련, 정보관리,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의 기관과 조직; (viii) 유·무형의 유산 자원(살아 있는 유산과 디지털 창조적인 활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 운영을 도모하는 문화센터와 그 밖의 실체(entities); (ix)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뒤 박물관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갖고 있거나 또는 박물관학적인 연구,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해서 박물관과 박물관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집행위원회 같은 그 밖의 기관”을 박물관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http://icom.museum/statutes.html>)

우리나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박물관 정의와 국제박물관협회의 박물관 정의 사이에는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국제박물관협회의 박물관 정의에 “공중에게 개방되고”,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으로서 ‘교류한다.’는 규정은 우리나라의 박물관 정의에는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박물관협회의 박물관 정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자료와 국제박물관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자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제박물관협회에서는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관한 증거물로서 학예·기술적으로 ‘중요한 것’(importance)을 박물관자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는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value)을 박물관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적으로 상호 평등 교류를 하기 위해서라도 박물관자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에 대한 인식은 사회·문화·교육적 환경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 나라의 의무교육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고, 박물관을 움직이는 사람과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박물관종사자와 이용자들의 박물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박물관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붙은 박물관이 있는가 하면, 박물관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박물관이란 호칭을 갖고 있지 않는 박물관성격의 박물관이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갖고 있는 ‘박물관’(museum)과 박물관사업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박물관이라고 호칭하지 않는 ‘준박물관’(quasi-museum), ‘유사박물관’(para-museum) 등이 있다.

실제로 준박물관은 고고학적인 현장과, 역사적인 기념물, 민족지 현장,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동식물사육장, 과학관, 천문관, 보존과학 기관, 미술관, 기록보존소, 자연보존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박물관은 박물관 같은(museum-like), 박물관과 관련된(museum-related)기관으로서 과학관, 유산관, 문화관 등의 형태로 존재함으로 준박물관과 매우 밀접하다. ‘박물관 같은’, ‘박물관과 관련된 기관이나 장소 가운데 동·식물원이나 수족관, 천문관, 기록보존소, 자연보존지역, 공원, 농원 등은 국제박물관협의회가 인정하는 넓은 의미의 박물관 정의 속에 포함된다.

기존의 박물관이 실물(originals)과 운영자 중심의 직관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주제박물관은 자원(resources)과 이용자 중심의 체험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물관학이 발달하기 이전, 과거에는 물품/작품중심(object-oriented)의 박물관 전시가 중심이었으나 신박물관학(new museology)이 발달한 이후로 내용중심(content-oriented)의 박물관 표출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선진 고고 / 역사(미술사) / 민속박물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주제박물관의 건립·운영의 성공은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주제설정과 체계적인 스토리 라인을 구성한 후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점단의 기법을 활용하여 표출함으로써 목표고객(target client)의 흥미를 끌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주제박물관의 옥내, 야외, 가상현실/사이버 공간에 짜임새 있게 구성함으로써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박물관에 입장하여 오감을 통해서 체험을 맘껏 즐길 수 있도록 박물관 자원을 다양한 형식과 경로를 통해서 이미지와 메시지, 소리, 빛, 맛, 느낌, 현상, 원리, 사실, 사물, 동식물, 생태, 환경 등을 DB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박물관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제박물관은 자의(字意) 그대로 개념중심의 박물관이기 때문에 특정 주제의 박물관을 한번 다녀갔던 고객이 재방문했을 때,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느낄거리 등의 새로운 품목(메뉴)을 찾지 못하면 주제박물관의 활동과 고객서비스에 실망할 것이다. 실망이 누적되면 주제박물관을 다시 찾는 재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지역 주제박물관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품목을 연구 개발하여 새로운 레파토리를 시리즈별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기획 이벤트 부서의 인력과 장비,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연구 개발 기획 이벤트 부서는 지역 주제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목표고객을 다원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고객이 오감을 통해서 만족을 느껴야 주제박물관은 지탱될 수 있고, 주제박물관의 목표고객은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 측면에서 고객확보와 관리를 위한 판촉활동(marketing)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주제박물관은 반드시 박물관학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박물관경영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경영을 위탁함으로써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

박물관 전문인력이 박물관의 건립·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제박물관의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의 내역을 충실하게 할 수 있고, 지역 주제박물관과 주변의 문화예술공간을 연계망을 통해서 자료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주제박물관은 고객이 흥미와 위락, 학습의 3요소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고 희망하는 형태의 주제박물관을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주제박물관의 설립자와 운영자를 이원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운영자와 이용자가 함께 공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기획단계의 프로젝트 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박물관 자원은 유무형의 문화유산(기록유산과 생활양식 포함)과 자연유산으로 대별해 볼 수 있지만, 자료와 정보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박물관의 자원은 구비(언어) 전승적 요소, 행위(의례) 전승적 요소, 물질 전승적 요소를 3대별해 볼 수 있지만, 자료 측면에서는 사물이 있고, 정보측면에서는 사실, 현상, 원리, 이미지, 소리, 냄새, 맛, 느낌, 생태, 환경 등이 있다. 주제박물관에서 설립·운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한 박물관 자원을 고객이 오감을 통해서 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게 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의 경우에 관광유형을 1) 산/사찰 2)계곡/폭포 3)스키장 4)바다/강/해수욕장 5) 문화유적지 6)박물관/미술관 7)유원지/관광지/공원 8)저수지/호수/늪지 9)자연휴양림 10)온천 11)관광농원을 포함해서 11개 분야로 나누었고, 박물관/미술관 분야에 1. 경기도 박물관 2. 광릉수목원(산림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농경유물관 5. 덕포진교육박물관 6. 두물위크샵 7. 마사박물관 8. 모란미술관 9. 목아불교박물관 10. 목암미술관 11. 몽골문화촌 12. 서울종합촬영소 13. 세종옛돌박물관 14. 소전미술관 15. 신세계한국상업사박물관 16. 여주 세계생활도자관 17. 여주 잠사 민속박물관 18. 이천 세계도자센터 19. 자유수호평화박물관 20. 중남미문화원 21. 철도박물관 22. 토지박물관 23. 토탈야외미술관 24. 한국등잔박물관 25. 한국미술관 26. 한국민속박물관(한국민속촌내) 27. 한택식물원 28. 해강도자기미술관 29. 현대 도자 미술관 30. 호암미술관을 포함해서 경기도지정 테마박물관이 30개관 등록되어 있다.(2002년 1월 현재)

반면에 충남도의 경우에 충남관광·여행을 1)국가지정문화재 2)도지정문화재 3)박물관·전시·기념관 4)문화유적지를 포함해서 4개 분야로 나누었고, 박물관·전시·기념관 분야에 1)국립박물관 2)대학박물관 3)민속박물관 4)특수박물관 5) 기념관 6)전시관 7)미술·조각관 8)문화진수회관을 포함해서 28개관이 등록되어 있다. 박물관·전시·기념관 분야의 28개관 가운데 잠재하는 테마박물관은 23개관이 있다. (2002년 1월 현재) 안타깝게도 충남넷의 충남관광·여행 / 테마별 청풍명월 여행 속에 1)볼거리 2)먹거리 3)즐길거리

4)관광열차여행 5)특산품을 포함해서 5개 분야로 나누었지만 문화예술기반시설에 대한 소개는 전혀 없다.

경기도의 경우에 테마유형을 1)호반관광권; 팔당호를 끼고 도는 드라이브코스과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하는 남양주, 양평등지의 명산 및 계곡 2) 풍치관광권;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관광지 및 심산계곡과 명산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휴식처 3) 문화관광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가 숨쉬고 있는 고장으로서 화성, 민속촌등의 관광지와 전통예절 및 민속행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지역 4) 안보관광권; 21C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여건 조성 및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포함해서 4개 분야로 나누었는데, 테마유형 문화관광권역에 1. 강변랜드 2. 건원릉 3. 경기도박물관 4. 고달사지 5. 과천경마장 6. 광주조선백자도요지 7. 국립현대미술관 8. 켈리사 9. 김포조각공원 10. 남한산성-장경사 11. 남한산성도립공원 12. 너리굴 문화마을 13. 농경유물관 14. 다산유적지 15. 대농리 석불입상 16. 덕포진 17. 도라전망대 18. 독산성세마대지 19. 동구릉 20. 두물위크샵 21. 마린월드 22. 마사박물관 23. 망배단 24. 명성황후생가 기념관 25. 모란미술관 26. 목아불교박물관 27. 목암미술관 28. 몽골문화촌 29. 문수산성 30. 미리내성지 31. 미사리 선사유적지 32. 민박 농사체험장 33. 밀성관광농원 34. 봉선사 35. 서오릉 36. 서울대공원 37. 서울랜드 38. 서울종합촬영소 39. 서전농원 40. 세종대왕릉 41. 세종옛돌박물관 42. 소전미술관 43. 신세계한국상업사박물관 44. 쌍미륵과 궁예미륵 45. 아양동 미륵 46. 안성문화마을 47. 안성성당(구포동) 48. 안성천문대 49. 에버랜드 50. 여주 세계생활도자관 51. 여주 잠사민속박물관 52. 여주도예촌 53. 영월루 공원 54. 와우정사 55. 용미리석불입상 56. 용주사 57. 유엔군초전기념비 58. 윤관장군묘 59. 율곡선생묘 60. 융릉·건릉 61. 이천 세계도자센터 62. 이천도예촌 63. 임진각관광지 64. 자운서원 65.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66. 죽산성지(이진터 순교지) 67. 죽주산성 68. 중남미문화원 69. 천마산스키장 70. 철도박물관 71. 충현서원지 72. 태평미륵 73. 토지박물관 74. 토탈야의미술관 75. 통일공원 76. 파사성지(婆娑城址) 77. 한국등잔박물관 78. 한국미술관 79. 한국민속박물관(한국민속촌내) 80. 한국민속촌 81. 해강도자기미술관 82. 행주산성 83. 현대 도자 미술관 84. 호암미술관 85. 화석정 86. 효종대왕릉(영릉)을 포함해서 총 86개소의 테마박물관이 소개되어 있다.

상기한 테마박물관은 국제박물관협의회가 인증하는 박물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박물관이지만 박물관이란 명칭이 붙어 있지 않은 테마박물관은 우리나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하 박미진흥법)의 박물관 등록규정에 어긋나는 소장품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제박물관을 등록하려는 관점에서 박미진흥법은 반드시 보완을 전제로 개정되어야 한다.

주제박물관의 설립·운영에 다양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한 <충

남지방에 잠재하는 지역 테마박물관>을 박물관 군락(museum cluster)으로 연계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면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주제박물관 사업을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백제역사재현단지의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건립과 백제마을 복원사업 외에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주제박물관 건립·운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충남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금 현황> (단위: 억원) 문화관광부 2002. 1. 10

시·도	보조금 시설명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지 원 예 산						
			계	국 고	지방 비	계	'96	'97	'98	'99	'00	'01
충남	고남패총박물관(태안군)	'97~'01	19	5	15	5			5			
	외암민속박물관(온양시)	'98~'02	55	16.5	38.5	11.5				5		6.5
	윤봉길의사기념관(예산군)	'99~'01	40	12	28	10				10		
	향토박물관(논산시)	'00~'03	47	14	33	7					7	
	천안박물관	'00~'03	150	45	105	5						5
	소 계(5관)					38.5			5	15	7	11.5

경기도의 경우에 2001년 3월 26일부터 5월 4일 2002년 3월18일부터 4월12일 까지 9개 지역 12개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158명의 문화 유산해설사를 양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퇴직교원, 향토사학가, 지역문화원 및 문화유산에 대한 일정한 소양을 갖춘 도민 가운데 선발하여 수도권외의 관광학과 교수, 향토사학가,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유산답사 전문가 등 경기도의 문화유산과 역사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관광지 해설기법, 관광객 심리,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관광서비스 마인드 등의 소양교육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문화유산에 대한 주제별 특강을 통해서 현장답사 및 해설실습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이론시험과 해설실기시험 등의 수료시험을 실시하여 경기도지사 명의의 문화유산해설사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지역 주제박물관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여 장차 지역 주제박물관의 안내요원으로 배치하여 지역 주제박물관의 건립·운영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지원과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주제박물관의 목표고객(target client)은 참여하기를 좋아하고, 체험을 통해 배우고, 박물관운영자들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주된 관심은 지식습득 보다 체험과 감성충족에 집중되어 있다. 주제박물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지역 주제박물관을 방문하면 박물관운영자 또는 문화유산해설사들과 함께 어울려 체험을 통해서 학습과 위락을 맘껏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주제박물관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주제박물관의 대사회 교육활동은 고객의 교육수준과 연령, 직업, 취향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주제박물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특정 주제아래 박물관 설립·운영자가 박물관 고객을 위한 유·무형자료의 표출과 정보 교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평생동안 비정규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개방되어야 한다.

오늘날 앞서가는 박물관에서는 문화·예술·사회·교육·후생·후생·복지 등의 복합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박물관은 박물관자료와 정보를 직관(直觀)을 통해서 실물을 보여 주는 전시공간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선진박물관에서는 유형의 물질자료 뿐만 아니라 무형의 비물질 정보를 오감(五感)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인간의 뇌가 이성과 감성 그리고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석(interpretation; 연구, 전시, 교육을 포함)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전시물의 표출(presentation)과 전시물을 통한 교류(communication)의 방식이 새로운 연계망(network)을 구축하고 있다.

과거에는 박물관자료의 표출과 교류는 옥내공간 또는 야외공간이 전부였지만 이제 시대는 온라인(on-line) 또는 오프라인(off-line)상의 가상현실공간에서 박물관자료 뿐만 아니라 박물관정보를 표출하고 쌍방향 교류를 함으로써 박물관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2차원의 평면 문서와 단순한 정태(靜態) 이미지에서 3차원의 입체 텍스트(text)와 움직이는 영상 이미지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가상현실공간에서도 표출하고 교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간 가운데 대중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 수 있는 공간이 박물관이다. 지역 주제박물관은 지역문화·예술의 보고(寶庫)이자 표출장소로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이어야 한다.

시·군 단위의 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 및 지역 전문가들의 주된 관심사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복리후생의 증진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박물관은 지역문화와 예술의 표출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문화와 지역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단체장들은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시설물 등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시설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역박물관에서 화두는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견인차로서 지역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증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근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역박물관, 특히 주제가 분명한 지역의 전문박물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문경시의 경우에 문경새재박물관과 문경석탄박물관, KBS-TV 드라마 세트장, 문경온천 등을 지역 이미지를 부각하는 테마로 선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을 군락으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경새재박물관은 새재 관문을 주제로 문경새재 지역의 역사와 전통적인 생활양식, 문화유산, 자연생태 등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방문객들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새재의 과객이 되어 보고, 산골 주민이 되어 보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경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을 지속적으로 끌고 있다.

문경석탄박물관은 문경지역의 석탄을 주제로 문경탄광의 역사와 일련의 채탄작업과정을 방문객들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광부들의 삶과 탄광의 작업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선조들의 삶을 되새겨 볼 수 있고,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문경의 KBS-TV의 드라마 세트장은 <태조 왕건>이라는 시대극의 대하드라마를 통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역사적 건축물의 복원과 고려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함으로써 왕건 드라마 매니아들을 2001년 한해 동안 약 200여만 명의 관광객을 문경으로 끌어들여 문경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문경온천단지는 문경시에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산재하는 각종 수련원 방문객들을 온천단지로 유도하여 문경지역의 관광휴양산업을 확산시키고 있다.

문경의 경우에 새재박물관과 석탄박물관은 문경시에서 직접 투자를 하였고, 드라마 세트장은 부지를 문경시에서 제공하였고, 온천단지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관광휴양산업과 박물관 군락을 연계한 테마 관광지로 개발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박물관은 서울지향이기 보다는 향토지향이어야 박물관의 대사회 교육활동이 돋보여야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다. 지역박물관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향구적인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요구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박물관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고 그 기능과 역할 및 운영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III. 지역 주제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증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지역박물관 설립은 1910년 결성된 경주 주민들의 애향 모임인 경주신라회가 1913년 신라고적보존회로 개칭하고 옛 객사를 전시관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sup>17)</sup> 백제의 옛땅 부여에서 1929년 부여고적보존회가 발족하면서 옛부여현의 객사인 백제관(百濟館)을 유물전시관으로 개설하여 사용하다가 1939년 조선총독부박물관 부여분관으로 편입되었고, 1945년 이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부여분관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초기의 지역박물관은 지역사회의 문화재보존운동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17 그 후 신라고적회 전시관은 1926년에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으로 편입되었고, 1945년 이후부터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문화재보존운동은 지역박물관 발족의 토대가 되었다.

지역사회를 위한 주제박물관은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으로서 지역주민과 지역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개방되고, 비정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전수, 학습과 위락을 위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목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환경과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종합박물관 보다는 전문박물관으로 개관하려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박물관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는 국립박물관도 전문영역별로 분관하거나 분야별로 나누어 독립적인 박물관 건물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박물관의 전문영역을 보다 깊이 있고 폭 넓게 다루겠다는 박물관 자체의지와 박물관자료의 안전관리와 과학적인 보존차원에서 학술적인 검증을 거친 후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중소규모의 지역박물관을 종합박물관으로 건립하기에는 전문인력이나 재정지원이 빈약하고, 전문박물관을 건립하기에는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쉽게 건립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지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실제로 소규모의 전문박물관 건립을 주저할 수도 있겠지만, 허술한 종합박물관보다 알찬 전문박물관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예술, 사회, 교육, 후생, 복지 등의 지역 박물관활동에 유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전세계적으로 문화유산 보존운동과 생태환경 보존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지역박물관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쓰레기처리문제와 산업공해문제, 자연재해문제, 생태환경의 보존과 정보·통신에 관한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우이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 인근에 있는 히라쓰카 시립박물관의 경우 이미 박물관의 종사자들과 박물관이용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박물관의 사회교육을 통하여 환경보호운동을 벌이고 환경파괴의 문제점 등을 진지하게 현장에서 논의하고 생태환경 보존운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박물관이 지역에서 수집했던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미래의 환경문제를 예견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교육을 통해서 현실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박물관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좋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과연 우리 주변에 어느 박물관이 현실문제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보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자성해야 할 문제이며 특히 박물관종사자들이 깨우쳐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박물관은 단지 옛 것만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다.

또한 일본 오오사카의 인권박물관의 경우 인권회복과 보호를 위하여, 박물관종사자와

박물관이용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인권의 소중함과 인권유린의 폐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해석하고 인권회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권박물관에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총독부 식민 통치아래서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유린과 폐해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표출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인권박물관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것은 박물관과 박물관 사이의 연계망조직이 활성화되고, 정보교류 및 인적·물적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점이다. 그 박물관의 한국실에 들어 갔을 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본 것은 짐을 운반하는 지게를 벽체에 기대 세우고 그 아래에 제사에 필요한 각종 제기를 진설하여 한국인의 의례생활의 일면과 생업도구의 일면을 동시에 보여 주는 문화적 맥락에 어긋나는 전시였다. 일본인 박물관종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지게가 갖는 의미와 용도 및 제례의 엄숙함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맥락을 짚을 수 있었다면, 문화적 문법에 어긋나는 전시를 감히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물관활동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남의 문제까지도 관심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관심은 순수할 지 모르지만 현대는 정보사회이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웃을 알기 위해 나아가 세계를 알기 위해 지구촌이고 저곳을 조사·연구하여 그들의 문화와 생태환경을 이해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개선과 이해증진에 한 걸음 앞서 나아갈 수 있다. 손자의 병법에 나오는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번 싸우면 백번 이긴다: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이란 글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리 대비하면 환란이 없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박물관 설립과 운영의 좌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1996년 8월에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청라 2구에 작은 향토박물관이 하나 생겼다. 이름하여 연기향토사료관, 이 박물관은 향토사학자 임영수씨에 의해 향토박물관으로 설립·개관되었다. 이 박물관의 특색은 정말 순수하게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향토박물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공동체박물관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공동체 성원들의 합심으로,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연기향토사료관은 박물관 운영과 관리면에서 기존의 사립박물관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자료의 수집은 임영수씨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그의 수집품은 지역공동체의 문화와 예술을 대변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 모두가 박물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의 향토박물관에서 전통생활양식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아무런 무리 없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박물관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IV. 지역 주제박물관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사회의 주제박물관은 지역사회의 의지와 요구, 기대효과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박물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지역박물관은 자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여망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재정과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박물관이 설립·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주제박물관은 지역사회의 공동소유로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그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생태환경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조사, 관찰, 수집, 발굴, 보존, 기록, 연구, 전시, 교류, 교육을 하는 문화예술·생태환경의 복합공간이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주제박물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비정규적인 교육활동과 문화예술 및 생태환경에 관한 현장체험 학습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관리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주제박물관은 방문객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고객은 누구나 자료와 정보, 시설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주제박물관이 지역사회의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편안한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우리는 지역 주제박물관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의 문화마을 만들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흥재(2002.11.02)에 의하면 문화마을 만들기 성공 요인은 첫째, 단일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이미지가 형성되고, 사업 아이디어가 발생되며, 참여자가 탄생하게 된다. 둘째, 독창성이다. 마을 만들기는 독창성이 생명이다. 셋째, 종합적 진행이다. 하나의 관련된 주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자발적 추진이 특징이다. 특히 중앙부처의 정책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http://www.kcpi.or.kr/front/magazine01-frame.htm?num=1881>)

지역 주제박물관을 건립·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분석작업을 통해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문화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 등을 재평가하여 지역사회의 위상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기업으로 말하면 감가상각 없이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다음 단계로는 그 지역사회의 주제 / 이슈를 찾는 작업이다. 이것은 모든 자산의 재평가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지향성 주제 / 이슈를 선택할 수도 있다. 마지막 단계로 이러한 주제 / 이슈가 정해지면 주제 / 이슈를 실현하기 위해 총체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황태규(2002, 08.01.)에 의하면 종합테마도시 개발계획 사례인 전라북도 진안군의 ‘건

강진안계획’을 보면, 주민이 건강한 도시, 건강문화의 도시, 건강산업의 도시라는 세 가지 기본 틀을 중심으로 하는 시티 마케팅(city marketing)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정에는 허준 동상이 세워지고,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에는 ‘재미있는 약초 이야기’라는 과목을 만들어 약초를 키우는 할아버지가 와서 직접 강의를 함으로써 어느 도시보다 건강에 대해 많이 알고 이를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한다. 또 전통의학박물관을 유치하고 민간요법에 관한 세미나를 유치하는 등의 문화적 활동을 통해 건강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고, 단순한 농공단지의 명칭을 건강산업단지로 바꾸어 건강산업체를 유치하여 건강산업의 중심지로 이끌어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행정의 건강화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러한 종합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강안지지원본부라는 행정체계를 만들고 이를 위해 공무원의 연수나 출장도 건강 관련 도시, 즉 중남미나 동유럽의 세계장수촌을 방문한다거나 건강산업단지 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healthgoal(건강고을)이라는 도메인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건강 관련 사이트와 연합하여 건강 관련 문화와 산업의 사이버 중심지를 구축한다는 그랜드 플랜을 담고 있다. 결국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러한 주제의 실현을 통해 전체가 건강이라는 테마로 통합된 도시를 만든다는 플랜이다.

지역 주제박물관을 건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주제를 선택하되 유행을 쫓아서는 안된다. 지역 차별화 전략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작은 것부터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주제는 선점해서 남보다 빨리 법적인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강릉시와 장성군의 홍길동 브랜드 선점 경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주변지역과 통합 마케팅 전략을 짜서 공동작업을 하는 것도 좋다. 무주·진안·장수를 무진장으로 묶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통합하여 공동 마케팅을 펼치는 곳도 효율적이다. 새로운 일을 자꾸 펼치기 보다 하나의 주제로 연계고리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http://www.kcpi.or.kr/front/magazine01.htm?hosu=130&page=1>)

지역 주제박물관을 튼실하게 건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실행을 하기에 앞서 공동체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와 주변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보교류와 자료교환을 통해서 지역 주제박물관은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지역사회의 핵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난영, 2001, 『박물관학입문』 서울 삼화출판사, 88쪽
- 이흥재, 2002, 「일본과 영국의 문화마을 만들기 운동」 『문화도시문화복지』, vol 135  
호 2002.11.01
- 최종호, 2002, 『한국의 미술문화사 논총』 서울, 학연문화사, 669~691쪽
- 최종호, 2000, 『박물관실무지침』, 서울, (사)한국박물관협회
- 최종호, 1996,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박물관학연구』 창간호, 대전, 대전보건전문대학 박물관학연구소
- 황태규, 2002, 「21세기 지역 발전과 시티문화마케팅」 『문화도시문화복지』, vol 130  
호 2002.08.01
- Choe, Jong Ho, 1997, The Community Museum Movement in Japan and Korea, *Community Museums in Asia*, Tokyo, The Japan Foundation Asia Center, 56-69
- Hudson, Kenneth, 1977, *Museums for the 1980s*, Paris: UNESCO
- Karp, Ivan, et al., eds., 1992, *Museums and Communities*,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 [http://www.kg21.net/common\\_frame.jsp](http://www.kg21.net/common_frame.jsp)
- <http://tour.mg21.go.kr/>
- [http://www.chungnam.net/02/main.jsp?inc=02\\_01\\_03\\_01](http://www.chungnam.net/02/main.jsp?inc=02_01_03_01)
- <http://icom.museum/statutes>.
- <http://www.kcpi.or.kr/front/magazine01-frame.htm?num=1881>
- <http://www.kcpi.or.kr/front/magazine01.htm?hosu=130&page=1>

## 【부 록 : 충남지방에 잠재하는 지역 주제박물관】

### 다정하고 친근한 명산

가야산 계룡산 광덕산 대둔산 덕숭산 백암산 봉수산  
서대산 오서산 용봉산 진악산 칠갑산 태조산 팔봉산

### 깨끗한 계곡

갑사계곡 강당골 거전계곡 동상골 동학사계곡 마점계곡  
명대계곡 무릉리계곡 성거계곡 수락계곡 용현계곡 유왕골 계곡  
작천계곡 화장골계곡

### 시원한 폭포

보석사12폭포 선녀폭포 용문폭포 은선폭포

### 도성 / 산성 / 성곽

공산성 노성산성 부소산성 서천읍성 성홍산성 운주산성  
위례산성 임존산성 해미읍성 홍주성

### 유서깊은 사찰

갑사 개심사 개태사 고란사 관촉사 광덕사  
동학사 마곡사 무량사 수덕사 쌍계사 장곡사

### 서원/향교

결성향교	공주향교	금곡서원	금산향교	남포향교	노성향교
당진향교	대흥향교	덕산향교	면천향교	목천향교	문헌서원
보령향교	부여향교	비인향교	서산향교	서천향교	석성향교
성암서원	송곡서원	신창향교	아산향교	연기향교	연산향교
예산향교	온양향교	용강서원	은진향교	임천향교	전의향교
정산향교	죽림서원	직산향교	진산향교	창강서원	천안향교
청양향교	충현서원	태안향교	한산향교	해미향교	행림서원
홍산향교	홍주향교	화암서원	효암서원		



## 고분/의사총/선돌

능산리 고분군      무령왕릉      쌍북리      북요지      정암리 와요지      칠백의총  
홍주의사총

## 신비로운 동굴

박쥐굴      수곡동굴      장수굴      지남철동굴      천수동굴      황금산동굴

## 싱그러운 자연 휴양림

금강휴양림      남이휴양림      만수산휴양림      성주산휴양림      안면도휴양림  
영인산휴양림      용봉산휴양림      진산휴양림      칠갑산휴양림      태학산자연휴양림  
회리산자연휴양림

## 금강 물길 따라 삼백리

강경포구      고란사      곰나루      금강발원지      금강하구둑      낙화암  
대청호      창벽

## 낭만과 추억의 해수욕장

갈목 해수욕장      구름포 해수욕장      꽃지 해수욕장      달산포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두여 해수욕장      만리포 해수욕장      몽산포 해수욕장  
무창포 해수욕장      바람아래 해수욕장      밧개 해수욕장      방주골 해수욕장  
방포 해수욕장      백사장 해수욕장      벌천포 해수욕장      사목 해수욕장  
삼봉 해수욕장      샛별 해수욕장      신두리 해수욕장      아치내 해수욕장  
안면 해수욕장      어은돌 해수욕장      연포 해수욕장      용두 해수욕장  
음포 해수욕장      장돌 해수욕장      천리포 해수욕장      청포대 해수욕장  
춘장대 해수욕장      통개 해수욕장      파도리 해수욕장      학암포 해수욕장  
홀미 해수욕장

## 작고 호젓한 섬

가의도      거아도      격렬비열도      고대도      고파도      궁시도      난지도  
내파수도      다보도      마도      병풍도      삼시도      석태도      외연도      웅도  
원산도      장고도      정족도      추도      호도      황도      효자도

## 해변가 절경

모감주나무군락 사자바위 천리포수목원 할미/할아비바위

## 해돋이/해넘이

마량리 해돋이마을 왜목마을 할미 / 할아비바위

## 푸짐한 서해 해산물

남당리 새조개 보령 굴밥, 굴구이 서천 꽃게장 안면도 대하구이  
왕산포 밀국낙지탕 장고항 실치회 장항 아구찜 천리포 갯개미 무침 .  
태안 바다장어 통구

## 얼큰한 민물요리

공주 장어구이 금산 제원 도리뱅뱅 .... 금산 제원 어죽 논산 황복탕  
부여 메기매운탕 부여 위어회 예산 봉어찜

## 갯칠 손맛이 나는 물음식

병천 순대 연기 한방오리백숙 연산 오골계 예산 산채정식  
예산 소복갈비 청양 구기자 갈비전 ....

## 향기 그윽한 민속주

계룡 백일주 금산 인삼주 논산 가야곡왕주  
논산 사과주 논산 알로에장수주 당진 면천두견주  
서천 한산소곡주 아산 연엽주 청양구기자주

## 지역향토축제

금산 인삼축제 논산 딸기축제 당진 상록문화제 백제문화제  
보령 머드축제 부여 수박축제 서천 모시문화제 서천 전어축제  
연기 도원문화제 예산 매현문화제 온양 문화제 천안 삼거리문화제  
천안 아우내봉화제 청양 칠갑문화제 태안 대하축제 홍성 만해제

## 흥겨운 민속놀이

공주 장승제 금산 물폐기 금산 총각대방놀이 논산 백중놀이  
당진 기지시 줄다리 .... 당진 안섬풍어당굿놀이 .... 보령 등바루놀이

부여 호상놀이    서산 굴부르기제    서산 벚가릿대놀이    서천 저산팔읍길쌈놀이  
연기 강다리기    예산 보부상놀이    천안 거북놀이    청양 동화제  
청양 산신제    태안 황도붕어풍기놀이 ....    홍성 용대기놀이

### 신나는 바다낚시

국화도    그누굴    매박섬    무창포    삼시도    신진도리    장안  
파도리    호도

### 물반 고기반 민물낚시터

갑사저수지    고북저수지    고북저수지    마정저수지    먼천저수지  
반산저수지    봉재저수지    삼봉저수지    삼교저수지    송악저수지  
수룡저수지    신원사저수지    신창저수지    업성저수지    예당저수지  
오봉저수지    인평저수지    전대리지저수지    천장저수지    청라저수지  
탐정저수지    풍전저수지    홍양저수지

### 골프

대둔산컨트리클럽    도고컨트리클럽    우정힐스    천안상록리조트  
프레야충남

### 패러글라이딩

보령옥마산    천안흑성산

### 갯마을 체험

당진 왜목마을    당진 한진포구    무창포 모세의기적    서산 벌말

### 도자기체험

계룡산도예촌    부여 백제요

### 철새 도래지 탐방

백로서식지    부남, 간월호    삼교호  
아산호    왕암지    금강하구둑

## 수목 군락지 탐방

동백나무군락    모감주나무군락    벚꽃군락  
상록수군락    천리포수목원    해당화군락  
해송군락

## 건강온천 · 해수탕

덕산온천    도고온천    마곡온천  
아산온천    안면도 해수탕    온양온천  
홍성온천

## 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 도립공원

대둔산도립공원    덕산도립공원    칠갑산도립공원

## 천연기념물

금산보석사의 은행나무 ...    난도 팽이갈매기번식 ....    당진송산면의 회화나무....  
마량리 동백나무숲    부여내산면의 은행나무 ....    서천신송리의 곶솔  
안면도의 모감주나무 ....    연기봉산동의 향나무    연산화악리의 오골계  
예산의 백송    외연도의 상록수림    천안광덕사의 호도나무 ....  
천안성환의 향나무    행정은행나무

## 중요 무형 문화재

기지시줄다리기    면천두견주    바디장    은산별신제    한산모시짜기

## 중요민속자료

남은들상여    남이홍장군유품    보부상 유품    부여민칠식가옥  
부여정계채가옥    서산김기현가옥    서천이하복가옥    아산건재고택  
아산성준경가옥    아산외암리참판댁    아산외암마을    예산정동호가옥  
윤보선전대통령생가    윤증가의 유품    윤증선생고택    전박신용장군의대  
전세맹고불유물    정충신장군유품    홍성엄찬고택    홍성조웅식가옥

## 지방무형문화재

결성농요 계룡백일주 공주봉현리상여소리 공주탄천장승제 금산농바우끄시기  
금산물떼기농요 금산인삼백주 내지리단잡기 내포제시조 보령남포벼루제작  
부여용정리상여소리 산유화가 서산박찔지놀이 서천대목장 서천부채장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 세도두레풍장 소목장 승무 아산연엽주 연산백중놀이  
지승제조 청양구기자주 청양정산동화제 태안설위설경  
한산세모시짜기 한산소곡주 홍성댕댕이장 황도붕기풍어제

## 국립박물관

공주박물관 부여박물관

## 대학박물관

건양대박물관 공주교대박물관 공주대박물관 호서대박물관

## 민속박물관

공주민속극박물관 연기향토사료관 온양민속박물관

## 특수 박물관

보령석탄박물관 산림박물관 한국건축박물관

## 기념관

독립기념관 백야기념관 안전기념관

## 전시관

금산인삼종합전시관 남이홍장군유물관 복권전시관  
예산보부상유품전시관 이상재선생유물관 충무공유물전시관

## 미술·조각관

당림미술관 임림미술관

## 문화전수회관

결성농요전수회관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안섬풍어당굿보존회관 은산별신보존회관